

# 광주 사립미술관 직원 상대 '갑질' 의혹

### 급여 신고금액과 다르고 허위일지 등 '민원 제기' 시, 올해 보조금 지원 잠정보류...내주 현장 실사 미술관 "제기된 내용 사실과 달라 진실 밝혀질 것"

광주시가 관내 유명 사립미술관에 수년간 지원해오던 보조금 지급을 돌연 잠정 보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A사립미술관에 근무했던 한 여직원의 아버지가 지난 15일 시청을 방문, B미술관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여직원의 일기 형태로 적시된 민원은 A4용지 10장 분량으로 미술관장의 고압적 언사와 행동, 열악한 근무환경(난방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보물 제작비용문제와 간식비 및 재료비·급여정산·업무일지허위 기재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퇴사한 여직원은 A미술관 근무 당시 전시해설사 및 에듀케이터로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여간 근무했다. 현재는 후유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다. 민원내용에서 여직원은 미술관 근무

무환경 등의 문제로 B관장과 갈등을 빚어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급성장염 등으로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광주시는 민원을 접수받고, 보조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순 없지만, 민원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 여부를 철저히 따져본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A미술관은 지난 2012~2017년까지 총 7,9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는(5월 1일~12월 31일) 1,565만원, 올해 1,800만원이 책정돼 집행될 예정이다. 대부분 리플릿 제작이나 미술관 유지보수, 전시회 추진 및 홍보비, 승강기 관리비, 무인경비 시스템 등의 경상경비로 쓰였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께 해당 미술관을 방문해 민원내용의 사실여부를 확

인할 계획이다. 특히 여직원 아버지가 제기한 사업비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금액결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행위나, 회계사무소에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른 점, 재택근무자의 허위 업무일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내용을 보면 미술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 같다. 민원이 제기됐으니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며 "다만, 실사에서 민원내용이 증빙되지 않으면 미술관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미술관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기된 민원은 모두 다 사실과 다르다"며 "시 담당자에게 민원에 대한 실사를 직접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고광민 기자



광주에서 달빛교류 '활짝' 2019 달빛교류(광주-대구)차 광주를 방문한 대구지역 학생들이 18일 오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 대나무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9~22	흑산도	10~16
담양	9~22	구례	9~20
화순	9~21	곡성	9~21
영광	9~19	완도	11~19
함평	10~21	강진	10~20
무안	9~19	장흥	10~19
영암	9~21	해남	8~20
진도	9~18	고흥	9~17
신안	10~18	보성	8~18

일출 05:56 일몰 19:08  
월출 18:54 월몰 05:59

목포: 만조 01:56 14:18 간조 07:13 19:33  
여수: 만조 09:05 21:31 간조 02:48 15:03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공사비 부풀리고 입찰 담합 검찰, 남부대 관계자 등 3명 기소

검찰이 학교 증축공사 입찰가를 담합하고, 수역원을 빼돌린 대학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77) 등 남부대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B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B씨 건설사가 16억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사비 2억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고광민 기자

### 고흥군청 폐자재 창고 방화범 검거

고흥군청 폐자재 창고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고흥군청 뒤편 조립식 건물에 불을 낸 20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용의자는 이날 새벽 1시 29분께 고흥여중 비품창고에도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학교 컨테이너 비품창고 6평이 모두 타 소량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진중민 기자

### '무기수' 김신혜 재심 29일로 연기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2)의 재심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15일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이 김씨 사건 변호를 맡았으나 최근 김씨 측이 변호인을 재선임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3차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채택 여부와 정정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 검찰, 불법 환전업주 구속기소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을 운영한 실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며 환전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문 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

다. 또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한 건물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이다. /고광민 기자

###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부인

#### "공소사실 인정 못해"...다음 공판 내달 28일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0)가 1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 아내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경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없는 상태에서 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

면서 "편견없이 순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기 전 차 안에서 이뤄진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건 직후 박씨가 아내를 구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B씨에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를 가장한 범죄로 규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B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착장 정자에서 추락 방지용 간판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 다음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의심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